

임진란 시기 明軍의 한국 문헌 수집과 편찬

박현규*

1. 서론
2. 明軍이 수집한 한국 문헌 사례
3. 明軍이 편찬한 한국 문헌 사례
4. 明軍의 문헌 활동에 대한 분석
5. 결론

1. 서론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선조 31)까지 7년 동안 조선, 명, 일본 등 동방 삼국이 격돌하는 국제 전쟁인 임진란은 각각 자국의 역사서에서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조선은 전 국토가 거의 유린당하고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 국가 체제가 무너질 지경까지 이르렀고, 일본은 豊臣秀吉 사망과 함께 봉건 제후 시대가 막을 내리고 徳川家康이 정권을 잡아 江戸 막부 시대를 불러일으켰으며, 명나라는 대군파견으로 국력이 급속도로 소모되어 만주족(훗날 청)에게 세력을 팽창시키는 기회를 주어 망국의 길로 접어들어갔다.

국가와 국가 간에 무력으로 충돌하는 국제 전쟁은 격심한 파괴를 일삼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지만, 때로는 교류 측면에서 상호 문화가 소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참전 국가들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상대국의 문화를 자국으로 이입시키고, 동시에 자국의 문화를 상대국으로 전파시켰다. 임진란 때 동방 삼국의 대규모 군사들이 한반도에 모여들자 자연스럽게 인적 접촉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

* 순천향대 중문과 교수

졌다. 특히 明軍(명나라 군사)과 일본군은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돌아다니며 조선 문화의 실정을 파악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는 연합국이었다. 명군이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는 일본군을 물리치는 본연의 목적 외에 조선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는 부수적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 수집 대상은 주로 조선 정치와 군사 동태에 관한 것이지만, 때로는 조선 문화와 학문을 대변하는 문헌의 수집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때 명군이 수집한 한국 문헌은 자연스럽게 중국 대륙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로 인해 명나라 조야에서 조선을 이해하는 폭이 한층 넓어졌으며, 조선과 관련된 출판물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학자들이 임진란 시기 조선과 명의 제반 사항에 대한 많은 성과물을 내어놓았다.¹⁾ 필자는 이 대열에 참여하고자 임진란 시기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문헌 교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번에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 문헌이 중국으로 들어간 제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다룰 논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명군이 한반도에서 수집 내지 편찬한 한국 문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이들이 한반도에서 한국 문헌을 수집 내지 편찬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논술 범주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첫째, 조사 시기는 임진란으로 한정한다. 다만 임진란 직후에 명군 일부가 한동안 한반도에 머물면서 일본군의 재차 침공과 철군을 준비한 시기도 포함시킨다. 둘째, 조사 대상은 한반도에 들어온 명군으로 한정한다. 임진란 시기에 조선 조정이 명나라 조정에 보낸 공문서가 매우 많은데, 이것들은 한반도에 들어온 명군이 수집한 문헌이 아닌 관계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1) 임진란과 명군에 관한 선행 학자들의 논저물은 매우 많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몇몇 작품만 열거한다.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歷史批評社, 서울, 2001.

조재곤, <壬辰倭亂 시기 朝鮮과 明의 문화교류>, 亞細亞文化研究, 6집, 暎園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2002, 15-41면.

鄭珉, <壬亂時期 文人知識人層의 明軍 交遊와 그 의미>, 韓國漢文學研究, 18집, 韓國漢文學會, 1996, 151-186면.

2. 明軍이 수집한 한국 문헌 사례

1) 許國威 수집 <高麗普濟禪師答李相國書>

명말 雲棲寺 비구 株宏이 편찬한 《皇明名僧輯略》이 있다. 이 책자에는 명나라 고승들의 행실과 어록이 적혀있는데, 말미에 <高麗普濟禪師答李相國書>가 수록되어있다.²⁾ 주굉 해제에는 이 자료가 중국으로 건너온 과정에 대해 적혀있다. 만력 정유년에 복건 許元眞이 東征에 나서 조선에서 한 語錄 책자를 구해왔는데, 이 어록은 중국에는 아직 없던 것이다.³⁾ 《황명명승집략》에는 어록 책자 중 한 편, 즉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만 옮겨 놓았다.

허원진은 許國威를 지칭하고, 원진은 그의 호이다. 복건 晉江縣 사람이며, 武進士 출신이다. 1598년(선조 31) 3월에 游擊將軍으로 보병 1,160명을 이끌고 한반도에 왔고, 이듬해 4월에 본국으로 귀국했다. 문장을 잘하고, 의리가 있었으며, 명 장수 楊鎬가 탄핵을 받았을 때 장관들을 이끌고 변호해 주었다.⁴⁾ 또 조선 병사들에게 무기를 다루는 기법을 전수해주었다. 당시 訓練都監에서 조선 병사들이 구사한 棍棒, 籐牌, 狼筈, 長槍, 鎗鈚, 雙手刀 등 6가지 기법은 허국위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졌다.⁵⁾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 중 普濟禪師는 고려말 고승 懶翁和尚을 지칭한다. 속성은 牙氏이고, 속명은 元惠이며, 나옹이 그의 법호이다. 공민왕 시기에 고려와 원나라를 주유하며 활발한 교화 활동을 펼쳤다. 문집으로는

2) 《황명명승집략》의 편찬 원칙이 다소 흔들리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해본다. 《황명명승집략》은 명나라 고승전이다.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의 편찬 시기는 고려 공민왕 때인데, 중국 조대로 원나라 때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굉은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를 《황명명승집략》에 편입시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주굉이 한국 조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이다. 중국 문헌에 고려와 조선을 혼용된 경우가 가끔 보인다. 다른 하나는 주굉이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가 외국 고승의 어록인 관계로 편찬 원칙에서 벗어나 특별히 기술했던 경우이다.

3) 《皇明名僧輯略》 <高麗普濟禪師答李相國書>: 「株宏曰: 此語錄, 萬曆丁酉福建許元眞都闈, 東征, 得之朝鮮者, 中國未有也. 元眞攜原本, 還國, 僅錄其一篇云。」

4)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중 <曹副愷票下官> 참조

5) 《國朝寶鑑》 권73 <正祖朝> 14년 4월조 참조.

《懶翁集》이 있다. 李相國은 李齊賢을 지칭한다. 이제현의 초명은 之公이고, 자는 仲思이며, 호는 益齋·櫟翁이다. 고려말에 4차례나 정승에 올라 흔들리는 국가 사직을 바로 잡았다. 또 뛰어난 문장가로 그의 이름은 원나라 문단에까지 드날렸다. 문집으로는 《益齋亂藁》가 있다.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는 허국위가 한반도에서 구한 어록 책자에 수록된 한 편의 문장이다. 주광이 적은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의 요지를 보면 참선에서 ‘無’자 화두를 통해 불법의 이치를 깨닫는데, 그 깨달음 자체에 집착하면 참된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⁶⁾ 보제선사 어록집인 《나옹집》에는 <答李相國齊賢> 2편이 수록되어있다. <답이상국제현>은 이제현이 보제선사에게 참선의 방도에 대해 물어보자, 보제선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의 방도와 경지에 대해 말해주었다. <고려보제선사답이상국서>는 <답이상국제현> 제2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허국위가 한반도에서 구한 어록 책자는 보제선사의 《나옹집》일 것으로 추정된다.

2) 藍芳威 수집 (白玉樓上樑文)

명청 문헌에는 간혹 조선 문인들의 작품들을 선록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록 빈도수와 작품수가 가장 많은 문인은 바로 許蘭雪軒이다. 그 이유는 허난설현의 시문이 매우 뛰어났던 데에서 나왔겠지만, 남동생 허균의 끊임없는 유포 노력이 지대한 작용을 하였다. 허균은 허난설현의 시문을 모아 문집으로 엮었고, 명나라 인사들과 접촉할 때마다 허난설현 문집을 유포하였다. 또 하나의 외적 요소는 명청 문단의 외국 여성 문인에 대한 선호도이다. 명청 문단은 조선 문단과 달리 여성 문인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시중에 여성 시문을 선록한 문집의 출현도 꽤나 많았다. 명청 문인들은 외국 문인의 작품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졌고, 특히 명청 문단에 극소량만 알려진 외국 여성의 작품에 대해 호기심이 더욱 많았다. 그들은 조선

6) 《皇明名僧輯略》 <高麗普濟禪師答李相國書>: 「既曾於無字話提撕, 不必改參也。曾參無字, 必於無字有小因地, 切莫移動, 切莫改參, 但於二六時中四儀內, 舉起話頭, 莫待幾時悟不悟, 亦莫管有滋味無滋味, 亦莫管得力不得力, 拶到心思不及, 意慮不行, 即是諸佛諸祖放命處。」

여성 허난설현의 작품이 뛰어난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와 동시에 허난설현의 작품을 수록한 선집의 출현도 급증하게 되었다.

명나라 문사 潘之恒은 말년에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자료를 한곳에 모아 《巨史》를 편찬했다. 이 책자 중에는 국내본 허난설현 문집과 다른 계통의 판본인 《聚沙元倡》이 수록되어있다. 1608년(만력 36)에 반지항은 《聚沙元倡》의 서문인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를 지었다. 이 서문에는 허난설현의 작품이 명나라로 흘러들어갔던 여러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여기에 정유란 때 명나라 유격장군으로 참여한 藍萬里가 보인다. 만리는 藍芳威의 호이다. 남방위는 1598년(선조 31)에 浙兵 3,300명을 이끌고 한반도에 들어왔고, 여러 전투에 참여한 후에 이듬해 7월에 귀국했다.

아래에서 반지항이 기술한 남방위 관련 기록을 정리해본다. 黃上珍은 金陵 總戎 藍萬里의 집에서 고려 繭紙에 정초한 <白玉樓上梁文> 1권을 보았고, 남만리는 <백옥루상량문>이 허난설현이 어릴 때 지은 것이라고 했다.⁷⁾ 그 후 황상진은 반지항에게 <백옥루상량문>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었고, 1611년(만력 39)에 반지항은 屯山の 遵晦園에서 남만리를 만나 조선 견지본에 靑川子 李盤이 75세에 글씨를 쓴 <백옥루상량문>의 실물을 친견했다. 이반의 필력은 굳세고 뛰어났으며, 한 글자도 흐트러짐이 없다.⁸⁾ 또 남만리는 한반도에 머물던 2년 동안에 허난설현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들었다. 허난설현의 오빠 許筠·許筠은 장원 급제를 했고, 허난설현은 과부가 되어 도교에 귀의하여 훗날 五百大仙教主가 되었으며, <백옥루상량문>은 7살 때 지은 작품이다.⁹⁾

<백옥루상량문>은 허난설현이 어렸을 적에 달나라 廣寒殿의 白玉樓가 완공되는 잔치에 참석하는 꿈을 꾸 후 그 장면을 흠모해서 지었다고 전해

7) 《巨史》 외편 권3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 巨史(반지항) 추록: 「黃上珍在金陵藍總戎萬里宅, 曾出高麗繭一卷, 精寫<白玉樓上梁文>. 詫客, 稱景樊少時作.」

8) 《巨史》 외편 권3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 巨史 추록: 「辛亥之春, 藍總戎萬里爲方外游, 過海陽, 晤於屯山之遵晦園. 首出朝鮮卷視予, 卽上珍曩爲予言者, 乃彼國老靑川子李盤七十五歲時書. 其字適眉, 無一敗筆. 所選多與予合.」

9) 《건사》 외편 권3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 巨史 추록: 「且云督戎朝鮮二年, 聞許慧女事甚悉. 兄筠·筠, 皆登狀首, 而慧女嫠居閉閣, 悟眞養性, 已斷文字緣, 指龍沙期至, 當爲五百大仙教主. 其<白玉樓上梁文>, 七歲時作, 非夙慧能然哉? 名曰景樊, 豈慕劉綱妻樊夫人乎?」

지고 있다. 허난설헌은 <백옥루상량문>을 지어 예로부터 천상 세계에서 천재 문사들이 노닐던 곳인 백옥루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 세계를 이상화시켜 가상의 천상 세계로 빠져 들어갔다. 당시 조선 문단에는 여러 명필가들이 <백옥루상량문>을 글씨로 남길 정도로 상당히 널리 알려졌다. 남방위가 입수한 <백옥루상량문>은 조선 이반의 글씨본이고, 입수한 시점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던 1598년(선조 31)~1599년(선조 32)으로 추정된다. 이반 글씨본은 현재 국내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韓瀆(石峯) 글씨본보다 몇 년 빨리 작성되었다. 한호 글씨본은 1605년(선조 38)에 遼山에서 작성되었고, 훗날 목판으로 상재되었다. <백옥루상량문>은 명칭 문단에 비교적 널리 알려졌다. 남방위와 그 주변 인사들 사이에 이반 글씨본 <백옥루상량문>이 감상되었고, 또 반지향의 《공사》에 <백옥루상량문>이 수록되었다. 趙世杰의 《古今女史》, 鍾惺의 《명원시귀》, 錢謙益의 《열조시집》 등 명칭 선집에 <백옥루상량문>이 선록되거나 소개되었다.

3) 呂永明 수집 (朝鮮國臣礪山太守鄭濼與呂參謀永明書)

대만 국가도서관에는 명 愼懋賞이 편찬하고 趙琦美가 증보한 《四夷廣記》가 소장되어 있다. 전 4책이고, 필사본이다. 책명 중 ‘四夷’는 중국 주변에 소재한 여러 국가를 지칭하는데, 대만 국가도서관장본은 내용이 거의 조선 관련 기록이라서 미완성본 또는 잔책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미의 자는 玄度이고, 江蘇 常熟 사람이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박학다식하였다. 또 서적을 좋아하여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서화 수집에 일가견이 있었다. 편저서로는 《脈望館書目》, 《草坪病害》, 《趙氏鐵網珊瑚》 등이 있다.

《사이광기》 책3에는 <朝鮮國臣礪山太守鄭濼與呂參謀永明書>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국신려산태수정설여여참모영명서> 말미에는 적힌 淸常道人 조기미의 발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영명은 遼地 사람이고, 태학생이다. 1603년(계묘; 만력 31)에 조기미와 함께 연경 承恩寺에 머물렀다. 이때 예부에 나가 加1級을 받았다. 일찍이 李如松 휘하에 있었을 때 정

설의 서찰을 얻었는데, 내(조기미)가 이 서찰을 초록했다. 서찰의 서명 방식에 있어 관직이 높은 자를 뒤에 두고 낮은 자를 앞에 두는 방식이 중국 방식과 다르다.¹⁰⁾

여영명은 李成梁, 이여송 집안에서 활동한 문사이다. 遼東總兵 이성량의 조상은 조선에서 건너왔고, 아들 이여송은 임진란 제2차 원군 때 防海禦倭總兵官이 되어 4만 3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반도로 들어왔다. 조선 조정은 이성량이 일본군의 정세를 묻는 일에 대한 논하는 자리에서 여영명이 吳宗道와 한 집안 사람이고, 이성량의 휘하에서 모든 沓揭를 관장하며 조선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했다.¹¹⁾ 그 후 여영명은 參謀軍事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한반도에 들어왔고, 車天輅, 李廷龜 등 조선 문사들과 만나 교류했다.¹²⁾

<조선국신려산태수정설여영모영명서>는 礪山太守 鄭滌이 소속 관원과 유지들을 이끌고 명나라 군사가 고을로 들어와 일본군을 퇴각시켰다는 업적을 칭송하는 일종의 공문 성격을 띤 서찰이다. 礪山은 礪良과 朗山이 합쳐진 지명으로 오늘날 전북 益山에 속해있다. 서찰 작성일은 1593년(만력 21) 7월 20일이다. 서찰 끝에 나열된 명단은 유생, 成均館進士, 礪山太守 鄭滌의 순으로 기술되어있다. 다시 말하자면 명단의 서명 방식은 중국 방식과 달리 관직이 높은 자를 뒤쪽에 두고, 관직이 낮은 자를 앞쪽에 두었다. 조기미는 아마도 이러한 소이로 이 서찰을 《사이광기》에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4) 黃應陽 수집 <擬皇明大學士黃淮謝賜宸翰還鄉表>

대만 국가도서관장본 《四夷廣記》 책3에는 조선 과거 답안지인 <擬皇明大學士黃淮謝賜宸翰還鄉表>가 수록되어있다. <의황명대학사황회사사

10) 《四夷廣記》 책3 <朝鮮國臣礪山太守鄭滌與呂參謀永明書> 清常道人 趙琦美 발: 「呂永明, 遼人, 太學生. 癸卯, 與予同寓于燕之承恩寺, 時呂方謁銓部, 勇爵例得應選, 職加一級. 呂當時亦在李如松轍下, 故鄭滌有此書誦, 予因錄之. 彼中爵尊者居後, 卑者列前, 亦以識書不同文耳.」

11) 《선조실록》 36년 9월 28일조 참조.

12) 車天輅 《五山集》 권5 <代金尙書答唐官呂永明書>, 李廷龜 《月沙先生集》 권1 <到車輦村, 遇呂相公永明, 携酒話穩, 呂出一詩, 次韻贈之> 참조.

신한환향표> 말미에 부착된 청상도인(조기미)의 발문에는 이 試卷의 유래와 내용, 중국으로 흘러들어온 과정에 대해 기술되어있다. 그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603년(계묘; 만력 31)에 조기미는 연경(북경)에서 黃復初를 만났다. 復初는 黃應陽의 호이다. 황복초의 책상 위에 조선 繭紙로 된 과거 답안지인 <의황명대학사황회사사신한환향표>가 놓여있었다. 대구는 쌍행이고, 短句는 단행이다. 제목 아래와 首聯에 ‘六積’이라는 글자가 적혀있고, 또 붉은 글씨로 비스듬히 ‘三之百二十六’이라고 적혀있다. 채점 방식은 중국과 같았다. 1593년(계사; 만력 21)에 황복초는 왕경 白岳山에서 우연히 이 試卷을 얻었고, 試卷 속의 黃淮가 그의 사대조인 관계로 중국으로 가지고 왔다.¹³⁾

황응양이 수집한 <의황명대학사황회사사신한환향표>는 조선 관청에서 한 선비가 과거에서 적은 試卷을 보고 등수를 매긴 것이다. 과거 문제는 명 黃淮가 쓴 표문을 본받아 짓는 것이다. 황회의 자는 宗豫이고, 호는 介庵이며, 浙江 永嘉 사람이다. 1397년(홍무 30)에 급제하여 中書舍人이 되었고, 그 후 翰林院侍讀, 編修, 武英殿大學士 등을 지냈고, 7번이나 한림원에서 과거 시험을 담당했다. 저서로는 《黃文簡公介庵集》이 있다. 1427년(선덕 2)에 황회가 고령이 되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사직을 청했자, 선덕제는 친히 글을 지어 지난 공덕을 기리며 은퇴를 허락해주었다. 이때 황회는 주상의 배려에 감사하는 표문, 즉 <황명대학사황회사사신한환향표>를 지었다.

황응양은 황회의 4대손이다. 그는 3차례 한반도에 들어왔다. 첫 번째는 1592년(선조 25) 7월에 병부의 差人으로 夏游擊, 徐一貫과 함께 조선의 실정과 임진란의 발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에 들어왔고, 이때 전란의 실상을 정확하게 짚어낸 보고는 명나라 조정이 조선 원병에 나서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두 번째는 1592년(선조 25) 12월에 經略 宋應昌을 수

13) 《四夷廣記》 책3 <擬皇明大學士黃淮謝賜宸翰還鄉表> 清常道人 발문: 「萬曆癸卯, 予試于燕京邁黃復初, 見其案間有繭紙表一卷, 蓋高麗試卷也. 其文對偶處, 並雙書; 短句如伏念臣等. 卽單書. 蓋便于讀耳. 下有六積二字, 是六積半號也. 首一聯上, 復有六積二字, 後復斜書三之百二十六等字, 皆硃書, 蓋取中式者之字號. 黃于癸巳援朝鮮, 曾在兵間至朝鮮王京之白岳山, 遇此卷, 因念淮乃其四世祖也. 故携之歸. 黃名應陽, 復初其號也.

행하여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이듬해에 전쟁의 수행 사항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세 번째는 1597년(선조 30)에 정유란이 발발하자 楊鎬를 따라 나왔다.¹⁴⁾ 황응양은 두 번째 조선에 왔을 때 왕경 白岳山에서 <의황명대학사황회사사신한환향표>를 얻었다. 백악산은 오늘날 서울 북악산을 지칭한다. 조기미는 아마도 조선 試卷의 제반 모습과 황응양의 기연을 명 문단에 소개할 목적으로 <의황명대학사황회사사신한환향표>를 《사이광기》에 수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5) 馮仲纓 수집 《朝鮮史略》

청나라 건륭제는 통일된 제국의 위엄과 만주족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에 소장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대형 총서인 《四庫全書》를 편찬했다. 1772년(건륭 37)부터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10년 동안 필사본 총 7부를 작성했다. 文津閣本 기준으로 모두 3,503종, 79,337권이 수록되었다. 여기에 한국 서적이 몇 종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朝鮮史略》이 들어가 있다.

四庫全書本 《조선사략》의 서수에는 1779년(건륭 44) 6월에 紀昀, 陸錫熊, 孫士毅 등이 작성한 <朝鮮史略提要>가 수록되어있고, 훗날 각종 해제를 모아 편찬된 《四庫全書總目提要》의 권66 <載記類>에도 <조선사략제요>가 수록되어있다. 다만, 《사고전서총목제요》 <조선사략제요>에는 사고전서본 <조선사략제요>보다 이 책자의 저본 소장처와 유통 과정에 관한 기록이 더 들어가 있다. 《사고전서총목제요》 <조선사략제요>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자의 저본은 浙江 鮑士恭의 家藏本이다. 일명 《東國史略》이고, 저자는 미상이나 명나라 때 조선 사람이다. 저본의 서말에는 1610년(경술; 만력 38)에 조기미 발문이 있다. 조기미 발문에 의하면 이 책자는 馮仲纓의 집에서 빌려 초록했는데, 당연히 조선 원병에 나섰을 때 입수했던 것이라고 했다.¹⁵⁾

14) 《象村先生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중 <楊經理票下官> 참조.

풍중영은 山陰 사람으로 방술에 뛰어나 참봉에 올랐다. 임진란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宋應昌의 막료로 들어왔고, 훗날 丁應泰의 標下參軍으로 다시 들어왔다. 한반도에 머물고 있을 때 조선 왕자를 구출하는데 앞장섰으며, 자주 조선 관원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漢陽의 풍수를 논했다. 한번은 조선의 국운을 엿보고자 申欽을 통해 선조의 필적을 구하려고 했다.¹⁶⁾ 이러한 사실은 許國威가 선조와 대면하는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선조는 풍중영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¹⁷⁾

풍중영이 한반도에서 구한 《조선사략》은 어떤 책자일까? 《사고전서 총목제요》 <조선사략제요>에는 저자를 명나라 시대 성명 미상의 조선인으로 적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풍중영이 이 책자를 수집할 때 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문헌은 가끔 저자 부분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조선사략》의 원명은 《東國史略》이다. 1402년(태종 2) 6월에 權近, 李詹, 河崙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이듬해 8월에 완성했다. 전 6권이고, 단군 조선부터 고려조까지 편년체로 작성되었다. 본문의 조목에는 역사 사건을 간략하게 나열하고, 그 아래에 자세한 사건 흐름을 기술했다. 중국 대륙으로 들어간 이후 《동국사략》의 책명은 《조선사략》으로 바뀌었고, 많은 문사들의 관심 서적이 되어 중국 문단에 널리 알려졌다. 명청 시대에 나온 각종 판본을 열거해보면 명 만력 연간에 조기미가 필사한 鈔本, 郭天中·廖孔悅 등이 교정한 목간본, 청 四庫全書鈔本, 翁樹崐校鈔本, 道光咸豐年間鈔本, 咸豐年間鈔本, 光緒19년(1893)景蘇園校刊本 등이 있고, 특히 만력목간본은 1937년에 商務印書館에서 영인 출판하여 시중에 널리 유통되었다.

15) 《四庫全書總目提要》 권66 <載記類> 중 《朝鮮史略》: 「六卷, 浙江鮑士恭家藏本. 一名《東國史略》, 不著撰人名氏, 乃明時朝鮮人所紀其國治亂興廢之事, 始於檀君, 終於高麗恭讓王王瑤, --- 書末有萬曆庚戌趙琦美跋, 稱借錄於馮仲纓家. 蓋當倭陷朝鮮, 出師東援時所得之本也。」

16) 《象村稿》 권37 <答馮仲纓書> 자주: 「求上筆蹟。」

17) 《선조실록》 31년 7월 27일조 참조.

3. 明軍이 편찬한 한국 문헌 사례

1) 남방위 편찬 《朝鮮詩選全集》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체류한 명군 가운데에는 문화 소양이 높은 몇몇 인사들이 있었다. 정유란 때 명 유격 장수로 참여한 남방위는 조선 시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朝鮮詩選全集》을 편찬했다. 《조선시선전집》은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조선간본과 중국 북경대학에 소장된 청대필사본이 남아있다.¹⁸⁾ 북경대학장 청대필사본은 버클리대학장 조선간본에 비해 매우 소략하고, 특히 후반부가 거의 탈락되어 완전한 판본이 아니다. 그러나 버클리대학장 조선간본도 수록 작품의 저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시구 오류가 매우 심해 결코 善本이라고 볼 수 없다.¹⁹⁾

아래에서 버클리대학장 조선간본 《조선시선전집》을 기준으로 서지사항을 정리해본다. 매권 수제 아래에는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남방위가 작품을 선록했고, 祝世祿이 열독했으며, 吳知過와 韓初命이 교정했다. 축세록 또는 한초명 다음에 일부 깎아낸 흔적이 있고, 그 아래에 ‘소’자가 보인다. ‘소’자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 인물이 참여했던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조선시선전집》의 편찬 작업에 오지과, 한초명 등 두 사람 외에 다른 인물이 더 있는지 모르겠다. 한초명은 정유란에 참가했던 명나라 장수이다. 1598년(선조 31) 8월에 管糧同知로 한반도에 왔다가 1600년(선조 33) 10월에 중국 대륙으로 돌아갔다. 한초명은 오명제가 편찬한 《朝鮮詩選》의 교열자에도 참여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동일한 교열자는 《조선시선전집》과 《조선시선》을 매우 닮은 책자로 만드는

18) 《조선시선전집》은 상기 두 소장처 외에 일본 愛知大學圖書館에도 1부가 더 소장되어 있다. 필자가 일전에 愛知大學圖書館의 고서보관실에 들어가 이 책자를 열람하려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도서관 목록에만 남아있고 현재 소장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다. 도서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좀 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9) 朴現圭, 《중국 明末·清初 朝鮮詩選集 연구》, 太學社, 서울, 1998.10, 15-23면.

李鍾默, <버클리대학본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2007년 여름호, 201-239면.

데 크나큰 작용을 했다. 다만, 축세록과 오지과는 한반도에 들어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선시선전집》은 총 8권이다. 제1권부터 제6권까지는 시체별로 나누어놓았고, 제7권과 제8권은 개인별로 기술해놓았다. 수록 작품은 箕子 <麥秀歌>부터 조선 선조조까지이며, 편찬 당시의 생존 인물인 尹根壽, 梁亨遇, 許筠도 포함되어있다.

남방위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시의 작품들을 입수했을까? 《조선시선전집》 서수에는 오지과의 <藍將軍選刻朝鮮詩>와 남방위의 <選刻朝鮮詩>가 있다. 이 두 서문에는 남방위가 전쟁을 수행하다가 여러 조선 인사들과 만나 시를 지어 주거나 옛 시를 읊어주었다는 말을 남겼지만,²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품을 수집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조선시선전집》 권7 <遊仙曲> 자주에는 “凡三百首, 余得其手書八十一首(무릇 3백 수가 있는데, 내가 그 필사본 81수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오명제 《조선시선》 許妹氏 <遊仙曲> 아래에도 이와 똑같은 주해가 달려 있다. 주해 중의 ‘余’, 즉 주해 작성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취사원창》 <유선곡> 주해의 기록으로 보아 남방위가 맞는 것 같다.²¹⁾ 《조선시선전집》 가운데 수록 작품이 가장 많은 시인은 허난설헌이다. 남방위는 한반도에 머물 때 허난설헌의 명성에 대해 익히 들어왔고, 또한 허난설헌의 작품을 좋아하여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서 <유선곡> 3백수와 조선 李盤이 쓴 허난설헌의 <백옥루상량문>을 입수했다. 이때 허균은 주도적으로 남방위에게 누이 허난설헌 관련 자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허균은 중국 인사들과 만날 때마다 허난설헌의 작품을 유포시켰고, 또 《조선시선전집》에도 허균의 시가 다수 수록되어있다.

2) 오명제 편찬 《朝鮮詩選》

정유란 때 두 차례 한반도에 들어온 오명제는 한시 작품을 다량 수집하여 또 하나의 시선집인 《朝鮮詩選》을 편찬했다. 오명제 《조선시선》은

20) 《조선시선전집》 남방위 <選刻朝鮮詩>: 「時詣軍幕, 以詩相投贈, 或以其國中所爲詩交出而傳示」

21) 《취사원창》 <유선사> 주: 「藍萬里云: <游仙曲>, 凡三百首, 余得其手書八十一首」

최소한 2종의 판본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그 중의 한 책자가 1600년(선조 33)에 간행된 조선간본이다. 조선간본은 오늘날 중국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아래에서 중국 국가도서관장본 《조선시선》을 기준으로 서지사항을 정리해본다. 매권 수제 아래에는 이 책자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의 명단이 기술되어 있다. 오명제가 작품을 선록했고, 賈維鏞, 韓初命, 汪世鍾이 小閱校正했다. 蘇州 출신 가유약은 1593년(선조 26)에 한반도에 나왔다. 1599년(선조 32) 4월에 原任郎中으로 萬世德을 보좌하여 재차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이듬해 7월에 돌아갔다. 그의 손자 賈琛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소주 가씨를 탄생시켰다. 한초명은 《조선시선전집》에도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왕세종은 만세덕을 따라 한반도에 들어왔다.

책자 서수에는 오명제의 <朝鮮詩選序>가 있고, 서말에는 허균의 <朝鮮詩選後序>가 있다. 오명제 서문에는 《조선시선》을 편찬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다. 1597년(만력 25)에 오명제는 贊畫 徐中素의 막부가 되어 조선 참전에 나섰다. 이듬해 3월에 압록강을 건너왔고, 4월에 의주에서 李文學을 비롯한 종사관들을 통해 이들이 암기하고 있던 한국 한시 1~2백수를 얻었다. 그 후 서울에 들어와 허균 집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한국 한시를 수집했다. 이때 허균이 암송하고 있던 한시 수백 편과 허난설헌의 시 2백편을 얻었고, 尹根壽와 여러 종사관들을 통해 다른 관련 자료를 얻었다. 7월에 서중소가 부친상을 당하여 豫章으로 돌아가자, 오명제도 귀국하여 長安(西安)으로 갔다. 장안 문사들은 오명제가 가져온 한국 한시와 허난설헌 <游仙曲>을 감상했다. 1599년(만력 27) 경에 다시 한반도로 건너와 李德馨의 관사에 2달 동안 머물면서 자료 수집과 책자 편찬에 힘을 쏟았다. 이때 신라조부터 조선조까지 시인 1백여 명의 한시를 선별했다.²²⁾ 허균의 후서

22) 吳明濟 <朝鮮詩選序>: 「丁酉之歲, 徐司馬公以贊畫出軍東援朝鮮, 濟以客從. 次歲戊戌季春, 涉鴨綠, 軍於義州. 孟夏, --- 有朝鮮李文學者, 能詩, --- 於是文學輩稍稍引見, 日益盛. --- 然有能憶者, 輒書以進, 漸至一二百篇. 及抵王京, --- 濟乃出, 館於許氏. 許氏伯仲三人, 曰筠, 曰篔, 曰筠, 以文鳴東海間. 筠·筠皆舉狀元. 筠更敏甚, 一覽不忘, 能誦東詩數百篇. 於是濟所積日富, 復得其妹氏詩二百篇. 而尹判書根壽及諸文學亦多搜殘編, 遂盈篋. 頃之, 司馬公以外艱歸豫章, 濟亦西還長安. 長安縉紳先生聞之, 皆願見東海詩人詠及許妹氏<游仙>諸篇. --- 居無何, 濟復征朝鮮, 館於李氏. 李氏, 朝鮮議政德馨也, 雅善詩文. 濟益請搜諸名人集, 前後所得, 自新

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허균은 오명제와 자주 만나 자신이 암송하고 있던 수백 편의 시를 제공했고, 이덕형도 오명제에게 자료를 제공해주었다고 했다.²³⁾

총 7권이다. 권1~권2에는 오언고시, 권3에는 오언율시, 권4에는 오언배를, 권5에는 칠언율시, 권6에는 오언절구, 권7에는 칠언절구가 수록되어있다. 수록 작가는 신라조부터 조선조까지 1백 20명 정도이고, 편찬 당대의 생존 인물도 포함되어있다. 수록 작품 가운데 허난설헌의 작품이 가장 많다. 이것은 허난설헌의 작품이 뛰어났던 점에서 나왔겠지만, 허균이 허난설헌 작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조선시선》의 편찬 작업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던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명제 《조선시선》과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두 책자의 선집 내용과 편찬 과정은 한마디로 매우 닮았다. 여기에 대해 일부 학자는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이 오명제의 《조선시선》을 절취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선 정조 연간에 李德懋는 명 유격장군으로 조선 원병에 나선 남방위가 편찬한 《조선시선(전집)》은 원래 오명제의 것인데, 어떤 연유로 남방위의 것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²⁴⁾

오명제 《조선시선》에는 다른 사람이 오명제에게 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卞獻의 <戲東吳子魚先生>, 藍秀才의 <席上賦呈吳子魚先生>, 李文學의 <呈吳子魚先生>, 허균의 <東吳子魚先生>, <彩毫詠次賈司馬戲贈吳子魚先生>이다.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도 이들 작품 중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편명에서 오명제의 자가 모두 삭제되었다.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에 기술된 해당 작품의 편명을 옮겨보면 卞獻의 <戲東>, 藍秀才의 <席上賦>, 李文學의 <呈吳孝廉>, 허균의 <東>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남방위가 의도적으로 오명제의 존재를 없애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덕무가 주장한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이

羅及朝鮮共百餘家。披覽之，凡兩月不越戶限，得佳篇若干篇，類而書之。」

23) 허균 <조선시선후서>: 「以筠所憶數百篇進，李議政亦拾斷簡佐之。」

24) 이덕무 《清脾錄》 권3 <朝鮮詩選>: 「藍芳威，字萬里，以遊擊將軍，壬辰東援，編《朝鮮詩選》。此卽吳明濟子魚，東來時所編，不知何故爲藍所有也。」

오명제의 《조선시선》을 절취했다는 의혹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현상도 보이고 있다. 오명제의 《조선시선》이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을 일부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과 오명제의 《조선시선》에 모두 “凡三百首, 余得其手書八十一首”라는 주해가 붙여있다. 《취사원창》은 여기서 ‘내(余)’가 남방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명제가 허균을 통해 허난설헌의 자료를 다량 수집했던 것을 분명하지만, 허난설헌에 관한 모든 작품을 수집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상기 <유선곡> 81수의 경우만 본다면, 오명제는 남방위가 수집했던 허난설헌 자료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방위는 조선에서 상기 <유선곡> 외에 조선 李盤이 글씨를 쓴 허난설헌 <백옥루상량문>을 소장하고 있었고, 허난설헌이라는 명성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오지과는 《조선시선전집》 서문에서 남방위가 여러 조선 문사들을 만나 관련 자료를 모았고, 책자 편찬에 있어서도 친히 나섰다고 했다. 또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에는 오명제 《조선시선》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 꽤나 보인다. 오명제 《조선시선》에 미수록된 작품들은 남방위가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이 오명제 《조선시선》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시한 이덕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명제 《조선시선》과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의 수록 내용이 매우 닮은 꼴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해답이 있겠지만,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오명제와 남방위의 인물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명제는 정유난 때 徐中素의 막부가 되어 한반도에 들어왔고, 남방위는 동시대에 유격장수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동일시기에 한반도에서 활동한 오명제와 남방위는 명군 고위층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했을 개연성이 있고, 최소한 상대방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오명제의 《조선시선》과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 즉 이 두 책자의 편찬 작업에 모두 참여한 한초명이 있다. 한초명은 자연스럽게 두 책자에서 활용한 자료를 공유했고, 또한 이것들을 오명제와 남방위에

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오명제와 남방위는 각각 《조선시선》과 《조선시선전집》을 편찬하면서 상대방이 수집한 자료를 참조했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두 책자의 수록 내용이 닮게 되었을 가능성을 짐쳐본다.

오명제 《조선시선》과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은 모두 善本이 되지 못한다. 오명제 《조선시선》과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에 수록된 작품을 보면 저자 오기, 시구 오록, 임의 변경 등 오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덕무는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이 오류 사항이 많아 善本이 되지 못한다고 논평했고,²⁵⁾ 李書九도 주로 오명제 《조선시선》의 자료를 옮겨놓은 청초 錢謙益의 《列朝詩集》에 대해 적지 않은 오류 사항을 지적했다.²⁶⁾ 따라서 오명제 《조선시선》과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의 오류가 단순히 두 사람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두 책자를 참조한 명말 청초 시선집에 각종 오류 사항이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전재되어 훗날 중국 문단에 한국 한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데 적지 않은 여파를 끼쳤다.

그렇다면 오명제 《조선시선》과 남방위 《조선시선전집》에 오류 사항이 왜 많이 발생했는가? 그 까닭에 대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 전란 시기에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다. 오명제가 조선 종사관들에게 한국 한시에 관한 문헌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선 종사관들은 전란으로 군신이 초야에 있는지 7년이나 되었고, 목숨 또한 보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문헌은 말할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진란이 발발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전란에 휩싸여 수많은 인명 희생과 막대한 물자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일본군이 점거한 지역은 재화의 약탈이 자행되었는데, 그 중에 문헌이 그들의 주요 약탈 대상물에 포함되었다. 오명제와 남방위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는 임진란 발발 이후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전란의 피해 정도가 극심한 시기였다. 이때 문헌 손실 또한 매우 심해 조선 종사관들이 제대로 된 문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자료 출처가 제공자의 기억에 의존하였다. 오명제가 조선 문사들로

25) 이덕무 《清脾錄》 권3 <朝鮮詩選>: 「蓋多譌誤, 非善本也。」

26) 李書九 《薑山筆彙》 참조.

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과정을 보면 제공자의 기억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오명제는 의주에서 이문학을 비롯한 여러 종사관들이 기억했던 시편 200수를 얻었고, 또 한양에서 허균이 기억해낸 시편 수백 수를 얻었다. 사람들의 기억 능력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물론 명석한 두뇌로 장원 급제한 허균은 예외로 치더라도, 일반 제공자들이 수백 수나 달하는 한시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셋째,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개수한 작품을 제공했다. 오명제는 한반도에 서 많은 조선인들을 만났다. 오명제가 의주에 체류한 기간만 보더라도 이문학 외에 여러 명의 종사관이 있었다. 종사관 가운데에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오명제와 만나 시가를 수창하거나 한국 한시를 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식함을 내세우거나 자국 시편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전 시인들의 작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차용하여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조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조선 조정은 명나라 인사들이 자국 작품을 보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선조는 명 사신이 과장 작품을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작품이 비루하여 중국인의 안목에 차지 못할까 염려했다.²⁷⁾ 이때 조선 조정은 작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보내거나 병란을 핑계로 자료 제공 자체를 거부하였다.

넷째,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작품을 개수했다. 1602년(선조 35)에 尹國馨은 때마침 연경에서 돌아온 成泳을 만나 명나라에서 새로 간행된 오명제의 《조선시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오명제 《조선시선》은 최소한 2종의 판본이 있다. 성영이 가져온 판본은 현재 알려지지 않는 명간본이다. 이 책자 속에 윤국형이 지었다고 한 <感懷· 罍子魚吳參軍>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感懷· 罍子魚吳參軍>이 신라 崔匡裕의 <長安春日有感>을 개작한 작품이다.²⁸⁾ 윤국형은 1598년(선조 31)에 한양 모 장군의 막하에서 오명제와 몇 차례 만났지만 오명제에게 시문을 준 적이 없었고, 개작 작품은 아마도 오명제가 중원에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27) 《선조실록》 28년 6월 7일조 참조.

28) 崔匡裕의 <長安春日有感>은 《東文選》 권12 <칠언율시>에 수록되어 있음.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비난했다.²⁹⁾

조선간본 《조선시선》에는 조선인이 오명제에게 준 것이라고 명기된 작품이 몇 편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 중 대다수는 전대 시인의 작품을 개작한 것이다. 卞獻의 <獻東吳子魚先生>은 李奎報의 <四時詞>를, 藍秀才의 <席上賦呈吳子魚先生>은 卞仲良의 <鐵關途中>을, 李文學의 <呈吳子魚先生>은 鄭允宜의 <書江城縣舍>를 개작한 것이다. 藍秀才의 秀才라는 명칭은 중국 과거제도에만 보이고, 조선 과거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개작 작품은 오명제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자신의 시선집에 삽입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다섯째, 편찬자 또는 교정자가 잘못 기술한 경우이다. 편찬자 오명제·남방위나 교열자 한초명·왕세종 등은 자료를 수집하는 초기부터 내용 교정을 거쳐 편찬 작업을 마칠 때까지 주변 환경의 열악함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고, 이로 인해 책자 편찬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고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꽤나 많이 발생한다. 더구나 명나라 출신인 이들은 국적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료 수집이나 검증 작업에 더 많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작업의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편찬한 책자의 오류 정도가 매우 심하여 모두 편찬자 또는 교정자의 단순 실수나 좋지 않은 여건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들다.

이상 종합하자면, 《조선시선》과 《조선시선전집》의 오류 현상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서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고, 어쩌면 다섯 가지 원인이 동시에 모두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29) 《甲辰漫錄》: 「壬寅仲夏, 余省親于黃岡, 成泳令公赴京還, 相遇打話間. 以爲在朝廷見新印《朝鮮詩選》, 乃吳明濟所纂. 其中有令公別吳一律云. 追思則余於戊戌在京時, 不知某將軍幕下, 有所謂吳明濟者, 能文人也. 與余所寓相近, 時或來見者數三度矣. 至如別章, 則余所不能, 實無是事. 聞其冊在書狀官趙誠立處, 求見則堅藏囊中, 到京當示之. 余還京取見, 題曰<懷感·呈子魚吳參軍>: 『麻衣偏拂路歧塵, 鬢改顏衰曉鏡新, 上國好花愁裏豔, 故園芳樹夢中春, 扁舟烟月思浮海, 匹馬關河倦問津, 七載干戈嘆離別, 綠楊鶯語太傷神.』余心竊怪之, 問諸知舊間. 或云: 此是《東文選》所載, 而七載干戈之語, 適與今時事相近, 故吳也攬取爲某別渠作, 以誇示於中原而然也. 吳之浮浪如此, 深恨其邂逅識其面也.」

3) 汪世鍾 편찬 《古今詩》

명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왕세종은 조선에서 시가를 수집하여 《古今詩》를 편찬했다. 徐煥의 《徐氏筆精》에 의하면 왕세종이 中丞 萬世德을 따라 한반도에 들어와 조선의 고급 시가를 모은 《고금시》를 편찬했는데, 중화의 격조와 닮았다고 했다.³⁰⁾ 1597년(만력 25)에 만세덕은 天津, 登萊, 旅順 등지에서 일본군의 해상 침공을 방어를 담당한 都察院僉都御史에 임명되었고, 얼마 후 經理가 되어 楊鎬를 대신하여 한반도로 파견되었다. 이때 왕세종은 한반도에 들어왔다. 한국 한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왕세종은 오명제 《조선시선》의 교열자로 참여했고, 또한 직접 자료를 정리하여 《고금시》를 편찬했다. 현재 《고금시》가 전해오지 않아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명제 《조선시선》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4) 오명제 편찬 《朝鮮世紀》

오명제는 한반도 체류 기간에 조선 인사들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이때 편찬한 책자로 상기 《조선시선》 외에 한국 역사를 다룬 《朝鮮世紀》가 있다. 대만 국가도서관장 《四夷廣記》 책4에는 오명제 편찬 《조선세기》가 수록되어있다. 전 2권이다. 卷上 수제의 저자 부분에 ‘會稽吳明濟子魚甫撰’, 卷下 수제의 저자 부분에 ‘會稽吳明濟撰’이라고 적어놓았다. 卷上은 檀君 시대부터 후삼국까지의 역사를 다루었고, 卷下는 고려 시대의 역사를 다루었다.

사이광기본 《조선세기》 말미에는 1604년(갑진; 만력 32) 3월에 燕臺 承恩蘭에서 작성한 조기미(淸常道人)의 발문이 적혀있다. 조기미의 발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기미는 薛公儀의 처소에서 《조선세기》를 빌려 초록했는데, 아마도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李省物은 경사(북경)에 다

30) 徐煥 《徐氏筆精》 권5 <朝鮮詩>: 「新都汪伯英, 從萬中丞經畧朝鮮, 集其國中《古今詩》四卷, 儼然中華之調. 伯英은 汪世鍾의 자이고, 萬中丞은 萬世德을 지칭한다.

른 종류의 叢書, 즉 30권본 동국 역사서가 있고, 僧自南은 郁伯承의 처소에 40권본 《東國志》가 있다고 했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³¹⁾ 당시 중국에는 오명제 편찬본 《조선세기》, 40권본 《東國志》, 30권본 동국 역사서가 유통되고 있었다. 명 만력 연간에 鴻臚寺 少卿을 지낸 설공의가 소장한 오명제 《조선세기》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명제가 귀국한 직후에 《조선세기》가 경사를 중심으로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 전겸익은 《열조시집》에서 오명제가 조선 역사의 시말을 적은 《高麗世紀》를 편찬했다고 했다.³²⁾ 전겸익이 말한 《고려세기》는 오명제의 또 하나의 저서가 아니라, 《조선세기》를 잘못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정조 연간에 韓致齋이 한국학 관련 국내외 문헌을 모아 편찬한 《海東繹史》 중 <檀君朝鮮> 조항에 《조선세기》에 수록된 내용을 직접 인용한 대목이 보인다.³³⁾ 《해동역사》에 인용된 《조선세기》 문구는 사이 광기본 《조선세기》와 일치하나, 몇몇 글자가 다르다. 이것으로 보아 한치윤이 인용한 《조선세기》는 당시 한반도에서 유통된 또 하나의 이본으로 추정된다.

《조선세기》 본문 끝에는 오명제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史贊이 수록되어 있다. 사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堯 임금이 일어나자 檀君이 일어났다. 周武王이 일어나자 箕子가 일어났다. 주나라가 쇠하여 七國이 출현했고, 동방에는 三韓이 출현했다. 한나라가 천하를 차지하자, 朴赫居世·朱蒙·溫祚가 각각 나라를 세웠다. 당나라가 천명을 받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당 則天武后가 정권을 장악했고, 신라에도 德曼(선덕여왕)·勝曼(진덕여왕) 등 여왕이 나왔다. 신라의 역사는 당나라의 흥폐와 같았고, 고려의 역사는 송·원의 흥폐와 같았다. 명 태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조선 태조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³⁴⁾

31) 《四夷廣記》 책4 《朝鮮世紀》 清常道人 발문: 「是書薛公儀鴻臚處所假, 殆非元本. 李省物云京師別具全書, 尙欲借之. 僧自南言構李郁承家具《東國志》四十本, 而省物云三十本, 未識何言爲的可據也.」

32) 《列朝詩集》 閔集 제6편 <朝鮮> 해제: 「明濟又撰《高麗世紀》一卷, 記朝鮮始終最詳, 蓋概括東國史而爲之也.」

33) 韓致齋 《海東繹史》 권2 <世紀二·檀君朝鮮> 중 <朝鮮世紀> 참조.

여기에서 오명제는 전통적인 화이관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 역사의 연동설과 친밀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역사의 친밀성은 조선·명 인사들 사이에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임진란 당시에는 주변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특별하게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허균은 <朝鮮詩選後序>에서 기자조선의 사례를 들면서 양국 역사의 친밀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오명제는 이러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바람에 양국의 모든 역사를 하나의 패턴으로 연동시켰다. 양국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양국 조대의 흥폐가 부합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이 있다. 이외에 오명제는 양국 역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몰아간 女主 정권, 즉 당 측천무후와 신라 선덕·진덕여왕의 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4. 明軍의 문헌 활동에 대한 분석

중국 인사들은 예로부터 주변 국가의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았다. 명나라 초·중기에는 주로 양국 사신들을 통해 인적 접촉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조선에서는 매년 명나라로 사신을 보냈고, 명나라도 여러 차례 조선으로 사신을 보냈다. 상대국에 입경한 양국 사신들은 이국 풍광을 읊은 시문을 남기고, 상대국 문사들과 만나 시문 수창과 학문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양국 사신이 만나는 상대국 인사는 일정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고, 활동 지역도 양국 수도와 사행 노정으로 국한되었다. 이 시기에 명나라 사신들의 사행 문헌인 董越의 《朝鮮雜誌》, 《朝鮮賦》, 倪謙의 《朝鮮紀事》 등만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볼 수 있다.

34) 《朝鮮世紀》 吳明濟贊: 「六合之內, 土地雖廣, 其運不二, 譬之一身, 支本異勢, 而化育之運, 間不容息. 昔帝堯興而檀君興, 周武王興而箕子興, 周德衰有七雄, 而東方有三韓氏, 漢有天下, 而赫居世·朱蒙·溫祚亦稱雄于東表, 及唐受命, 新羅亦混一三韓. 武后聽政竊弄天紀, 而新羅德曼·勝曼亦以女子相繼稱孤, 唐興衰與新羅相終始, 王氏興衰亦與宋元相終始, 故我太祖高皇帝龍興, 而朝鮮李氏亦立國焉. 嗚呼, 可以觀國家之大運矣.」

일반 중국 문사들이 조선 문화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비록 이들이 옛 문헌에 기술된 조선 관련 내용을 통해 조선 문화를 엿보는 하지만, 그 내용은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라 최신 지식 증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 이들은 중국 서사에 간간히 한반도에서 흘러들어온 조선 문헌을 통해 조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곤 하지만, 서사에 유통되는 조선 문헌의 숫자가 극소량이라, 이 또한 정보의 확산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임진란을 전환점으로 하여 중국 문사들이 받아들인 조선 문화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은 대폭 증가하였다. 임진란이 발발하자 명나라는 조선의 구원 요청과 일본의 ‘명에 쳐들어갈 길을 빌리겠다(征明假道)’라는 공언으로 인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다. 1592년(선조 25)에 명나라는 遼陽副總兵 祖承訓이 이끄는 군사들을 파견한 이래 임진란이 종식된 직후까지 수십 만이나 되는 병력을 여러 차례 나누어 한반도로 파견했다. 이 시기에 명나라와 조선의 문화 교류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전쟁 수행 차 한반도에 들어온 명군은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많은 조선 인사들을 만났고, 또한 활동 지역도 예전의 사신들에 비해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조선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명군 가운데 학문을 좋아하는 인사들은 자국과 동일한 문자로 쓴 한국 문헌을 보길 원했고, 곧이어 이러한 호기심과 열정은 본격적으로 한국 문헌을 수집하거나 편찬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명군 인사들은 한국 문헌을 접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첫째, 同文 의식이다. 명군 인사들은 예전부터 조선은 자국과 같은 한문화권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가, 이번에 한반도에서 자신의 눈으로 그 실체를 확인하고 同文 의식을 자극했다. 이들의 동문 의식은 곧바로 한반도에서 한국 한문 문헌을 감상하거나 수집하는데 중대한 동기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화 문화가 멀리 해외 국가까지 미치고 있고, 자국 문화가 매우 우월하다는 심리 상태도 내포되어있다. 예를 들면 韓初命과 吳明濟는 조선 한시가 箕子의 유품을 이어받았다고 했다.³⁵⁾

35) 韓初命 <刻朝鮮詩選序>: 「昔余濟鴨綠而望義城, 嘆曰: 此其箕子之封疆乎. --- 又今于吳君而得箕子之遺響焉。」

둘째, 경외심이다. 명군 인사들은 임진란 이전에 조선과의 교류 여건이 여유치 않는 관계로 한국 문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가, 임진란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와서 다수의 한국 문헌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은 조선의 한학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다. 예를 들면 吳明濟는 여러 조선 종사관들이 지은 작품을 보고 우아하고 담담하며 가히 불만하다고 했다. 이것은 오명제가 한국 문집들을 직접 수집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³⁶⁾

셋째, 이질감이다. 한국 한문은 한국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국 한문으로 적은 문헌도 한국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문서의 경우는 중국 방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趙琦美는 礪山 태수 서찰에 적힌 連名者의 배열 방식이 중국과 다르다고 했다.³⁷⁾

명군 인사들이 한국 문헌을 수집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우연한 기회나 단순 호기심에서 한국 문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연합국인 조선과 명나라의 양측 인사들은 전쟁 수행 기간에 적지 않은 문서와 서찰을 주고받았다. 명군이 귀국할 때 조선 측에서 보낸 각종 문서와 서찰을 휴대해 갔다. 예를 들면 명 呂永明은 귀국할 때 예전에 礪山太守 鄭堧이 자기에게 보낸 서찰을 가지고 갔다. 또 명군 인사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도처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한국 문헌을 접하고 그것을 취득했다. 예를 들면 명군 黃應陽은 백악산에서 우연히 자신 선조의 기록을 담은 과거 답안지를 보고 취득했다.

다른 한 부류는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취득하는 경우이다. 명군 가운데 학문 소양이 높은 인사들은 한국 문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국 문헌 수집에 나섰다. 예를 들면 오명제는 처음 입국할 때 한국 한시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훗날 재차 입국할 때는 애당초부터 한시 선집 책자를

吳明濟 <朝鮮詩選序>: 「昔者延陵季子氏聘於魯, 聞列國之音而知其政. 濟觀東國之聲而挹箕子之遺風焉。」

36) 吳明濟 <朝鮮詩選序>: 「有朝鮮李文學者, 能詩, 解華語, 坐語久之, 因賦詩相贈. --- 於是文學輩稍稍引見, 日益盛, 其人率謙退揖讓, 其文章皆雅淡可觀. 濟因訪東海名士崔致遠諸君集。」

37) 《四夷廣記》 <朝鮮國臣礪山太守鄭堧與呂參謀永明書> 趙琦美跋: 「彼中爵尊者居後, 卑者列前, 亦以識書不同文耳。」

편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문헌 수집에 박차를 가했다.

아래에서 명군 인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국 문헌을 수집할 때 활용했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조선 접반사(종사관 포함)에게 문헌 수집을 요청하는 것이다. 명군 고위 인사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조선 조정은 이들을 접대하고 의사소통을 맡을 접반사를 보냈다. 명군 고위 인사는 조선 접반사를 자주 만나 조선에 관한 여러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때 학문 소양이 높은 일부 명군 고위 인사는 한국 문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방하며 조선 접반사를 통해 관련 문헌 수집에 나섰다. 예를 들면 1598년(선조 31)에 명나라 御史 楊鎬는 접반사에게 조선 국초의 사적을 알 수 있는 책자를 구해달라고 했다.³⁸⁾ 이때 일부 명군 고위 인사는 책자 구입 대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명나라 主事 丁應泰는 조선 접반사에게 書單을 내어주며 이들 책자를 구해달라고 했다. 조선 접반사가 전란을 구실로 삼아 자료 수집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정응태는 주도적으로 구입 대금을 주어가며 문헌 수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³⁹⁾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명군 인사가 직접 조선 문사를 찾아 문헌 수집에 나서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오명제는 한국 문헌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목적으로 명군 진영에서 나와 許筠, 李德馨 등 조선 문사의 처소에 머물렀다. 이때 오명제는 이들로부터 많은 한국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이 명군 인사들로부터 한국 문헌을 수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조선 조정은 이들의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했고, 특히 국왕 선조는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마지못해 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반응하였다. 1595년(선조 28)에 한반도에 들어온 명나라 차관이 조선 科場에서 치르는 詩·賦·論 등을 보기를 원했다. 예조는 선조에게 이 사실을 아뢰면서 전례에 따라 弘文館에서 해당 작품을 뽑고 承文院에서 편찬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선조는 우리나라 사람의 작품이 중국인의 안목에 차지 않으니, 전란에 문헌 소실이 많아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구실을 내세워 명나라 차관의 요청을 거절하는 쪽으로 명했다.⁴⁰⁾

38) 《선조실록》 31년 3월 24일조 참조.

39) 《선조실록》 31년 2월 29일조 참조.

40) 《선조실록》 28년 6월 7일조 참조.

또 1598년(선조 31)에 승정원은 명 양호의 서책 요청에 대해 權近의 《陽村集》을 주자고 건의하자, 선조는 명 장수가 자신이 구하여 본다면 그만 이지 공식적으로 증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거절하도록 명했다.⁴¹⁾ 또 같은 해에 선조는 명 정응태의 서책을 구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 대해 마지못해 일부 책자를 건네주도록 명했다.⁴²⁾

이때 명군 인사를 접대한 조선 인사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한 부류는 조선 조정의 공식적인 반응과 별반 차이가 없다. 조선 접반사는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한다. 오명제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조선 종사관들은 전란 때라 남아있는 문헌이 없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다른 한 부류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오명제는 허균의 집에 머물러 자료 수집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 허균은 자신과 집안 인물의 문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자신이 암송하고 있던 작품과 누이 허난설헌의 작품을 오명제에게 건네주었다.

5. 결론

전쟁이라는 단어에는 파괴, 고통, 피해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극소수이지만 이와 반대로 회복, 재생, 재건 등 긍정적인 이미지도 내포되어있다. 조선·명 연합군과 일본군이 격돌한 국제 전쟁으로 치러진 임진란은 참전국 모두에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준 불행한 사건이지만,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상호 소통의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임진란 발발 초기에 遼陽副總兵 祖承訓이 이끄는 明軍이 한반도에 파견된 이래 속속들이 대규모 군사들이 들어와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쟁 수행에 나섰고, 임진란이 끝난 직후에도 혹시 모를 일본군의 재차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일부 명군이 남아있었다. 명군이 한반도에 체류한 주된 목적은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 수행이었지만, 때로는 문화 수준이 높은 일부 명군 인사들

41) 《선조실록》 31년 3월 24일조 참조.

42) 《선조실록》 31년 2월 29일조 참조.

이 한국 문헌을 수집하여 중국 대륙으로 전래시키는 문화 수출의 통로 역할을 맡았다.

명군 인사가 한반도에서 한국 문헌을 수집한 사례를 보면 許國威가 입수한 <高麗普濟禪師答李相國書>가 들어가 있는 어록 책자(고려 普濟禪師의 <<懶翁集>>으로 추정됨), 藍芳威가 입수한 조선 李盤 필사본 許蘭雪軒의 <白玉樓上樑文>, 呂永明이 조선 관원들로부터 받은 <朝鮮國臣礪山太守鄭滌與呂參謀永明書>, 黃應陽이 입수한 4대조 黃淮와 관련된 <擬皇明大學士黃淮謝賜宸翰還卿表>, 馮仲纓이 입수한 <朝鮮史略> 등이 있다. 또 명군이 한반도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 관련 문헌을 편찬한 사례를 보면 남방위, 吳明濟, 汪世鍾이 각각 한국 한시 작품을 선록한 <<朝鮮詩選全集>>, <<朝鮮詩選>>, <<古今詩>>, 또 오명제가 단군 조선부터 고려조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朝鮮世紀>> 등이 있다.

명군 인사가 한국 문헌을 접할 때 자국과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同文 의식과 한국 한학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고, 이와 반대로 한국 문헌의 내용이나 기술 방식이 중국과 다른 점을 보고 이질감을 느꼈다. 명군 인사가 한국 문헌을 취득할 때 우연히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직접 조선 문사들을 찾아다니거나 문헌 수집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조선 조정은 명군 인사로부터 한국 문헌을 수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조선에 관한 정보가 중국 측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명군 인사를 접대한 조선 문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조선 조정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한 부류는 이것을 좋은 교류 기회로 삼아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申欽 撰, 《(국역)象村集》,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1994.
- 正祖命 撰, 《(국역)國朝寶鑑》,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1996.
- 愼懋賞 撰, 趙琦美增補, 《四夷廣記》, 臺灣 國家圖書館藏本.
- 株宏 撰, 《皇明名僧輯略》(《禪宗全書》 책15), 文殊出版社, 臺北, 1987.
- 潘之恒 撰, 《巨史》(《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冊193-4), 齊魯書社, 齊南, 1993.
- 朴現圭 撰, 《중국 明末·清初 朝鮮詩選集 연구》, 太學社, 서울, 1998.
- 吳明濟 編, 祁慶富校註, 《朝鮮詩選校註》, 遼寧民族出版社, 沈陽, 1999.
- 李鍾默 撰, <버클리대학본 남방위의 『조선시선전집』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2007년 여름호.
- 盧京姬 撰, <17세기 전반기 명문단의 조선시선집 간행과 조선한시에 대한 인식>, 韓國漢文學會 2010年度 全國學術發表大會 발표문, 2010년 10월 22일-23일.

The Activities and Cases of Collecting Korean Documents and Editing Books on Korean Studies by Figures in the Ming Armed Forces in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Park, Hyun-kyu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collecting Korean documents in Korea or editing books on Korean studies by figures in the Ming Armed Forces in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Ming Armed Forces did incidentally the activity of cultural exchange when they entered into Korea in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n in 1592. The war gave great damage to all of the countries which entered the war, but provided the opportunity of mutual exchange in cultural aspect.

Figures in the Ming Armed Forces felt the sense of sharing the same script, awe, and the sense of difference when they encountered Korean documents. The main route of their acquisition of Korean documents are from Korean officials who received them. Sometimes, they paid for Korean books they wanted or showed an enthusiastic attitude to visit Korean Literati to search for documents.

Korean government showed negative attitude when they received the request from figures in the Ming Armed Forces to collect Korean documents because of the outflow of materials and the problem of the level. Korean figure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group showed the similar attitude with Korean government and the other demonstrated a cooperative attitude for the purpose of taking the chance to make a good cultural exchange.

접수일자: 2011. 3. 30
심사기간: 2011. 3. 30~2011. 5. 20
계재결정: 2011. 5. 20